**[1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을 때 글에 사용된 개념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글에 담긴 개별적 내용뿐만 아니라 글 전체의 논리적 구조를 함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항 대립 구조는 두 가지 개념을 짝지어 상반되는 성격으로 대립시키는 것으로, 글의 구조를 완성하고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어휘나 문장과 같은 글의 개별 요소의 의미를 분석하여 저자가 설정한 이항 대립 구조를 파악하면,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항 대립 구조를 단서로 저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항 대립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저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저자의 의도에서 벗어나 글의 의미를 확장하는 읽기 방법이 해체적 읽기이다. 해체적 읽기에서는 이항 대립되는 개념들 사이에 저자가 어느 쪽의 개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위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다고 보고, 이 위계의 모순을 밝힌다. 해체적 읽기는 글을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이항 대립 구조를 확인하는 것으로 독자는 글에서 대립되어 있는 두 가지 개념의 짝을 찾아야 한다. 글 안에 흩어져 있는 어휘나 문장과 같은 글의 개별 요소를 두 개의 대립군으로 분류함으로써, 그 대립 관계가 글의 구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항 대립 구조임을 식별해 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항 대립 구조 속의 위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자는 글에서 어휘나 문장 등이 쓰인 맥락을 분석하여 저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개념과 부정적으로 여기는 개념 사이의 위계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앞서 파악한 위계의 모순을 밝히는 것이다. 독자는 글에 부정적으로 나타난 개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저자가 설정한 위계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혹은 글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한 바와 실제로 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어긋나는 지점을 포착하여 위계의 모순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글의 의미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며 글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자는 해체적 읽기를 통해, 글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음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가 저자의 의도대로 해석한 내용이 언제나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은 아니며,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자는 글을 저자에 의해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의미가 확장되는 공간으로 받아들여, 글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능동적인 독자로 거듭나게 된다. [A]

*1.*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항 대립 구조를 단서로 활용하면 저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도 있다.
② 이항 대립 구조를 먼저 파악하여야 글의 개별 요소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③ 이항 대립 구조를 통해 글의 구조는 완성할 수 있지만 글의 주제를 강조하기는 어렵다.
④ 이항 대립 구조는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을 합치시켜 글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
⑤ 글에 사용된 개념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글의 전체적인 구조는 파악할 수 있지만 글에 담긴 개별적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2.* <보기>는 학생의 독서 활동 일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홍길동전」을 읽고 ㉠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당대의 신분 질서'와 대립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저자는 ㉡ 의적 홍길동을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면서, 길동이 호부호형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려 당대의 신분 질서를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 작품은 ㉢ 길동의 의적 활동을 그리면서도 그로 인해 사회가 혼란해지는 모습도 표현했다. 그리고 ㉣ 길동이 율도국의 왕이 되었을 때 태평성대가 왔다고 서술한 부분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당대의 신분 질서가 사회 안정에 필요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 「홍길동전」은 당대의 신분 질서를 비판하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작품임을 알게 되었다.

① ㉠: 대립되어 있는 두 가지 개념의 짝을 찾아 이항 대립 구조를 확인하고 있군.
② ㉡: 글에서 저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개념과 부정적으로 여기는 개념 사이의 위계를 확인하고 있군.
③ ㉢: 글에 부정적으로 나타난 개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저자가 설정한 위계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파악하고 있군.
④ ㉣: 글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한 바와 실제로 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어긋나는 지점을 포착하고 있군.
⑤ ㉤: 글의 의미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며 글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있군.

*3.*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독자가 완결된 글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다시 설명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한다. 글의 해석은 주관적 행위이며, 해석의 근거로 제시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선택에도 주관이 개입한다. 따라서 글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독자는 여러 관점과 해석을 비교하고 규정함으로써 보편적인 해석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A]와 달리 <보기>는 독자가 여러 관점과 해석을 비교할 수 없다고 본다.
② [A]와 달리 <보기>는 독자가 보편적인 해석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③ <보기>와 달리 [A]는 글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라고 본다.
④ <보기>와 달리 [A]는 글의 해석을 주관적 행위라고 본다.
⑤ [A]와 <보기>는 모두, 독자가 글을 저자에 의해 완성된 결과물로 봐야 한다고 본다.

**[4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러셀은 세계를 객관적 실재로 이해했다. 러셀에 따르면 명제는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을 문장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내는 언어적 표현이다. 러셀은 명제가 그 사실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명제가 세계와 대응되면 그 명제는 참이며 명제가 세계와 대응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하였다. 러셀은 과학이나 윤리 등 서로 다른 영역도, 명제로 표현된 것과 세계와의 대응 여부로 참과 거짓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평가 방식을 지닌다고 보았다.

러셀은 명제를 분석해 세계와의 대응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란 세계와의 대응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명제가 참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명제에 있는 여러 사실들의 관계를 세계의 사실 관계와 일치하게 판단한 경우 그 판단은 참이다. 러셀은 세계에 대한 앎인 ㉠지식을 진리에 대한 지식과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물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된다.

사물에 대한 지식은 세계에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러셀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다시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과, 기술에 의한 지식으로 구분한다. 이때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우리의 감각에 주어지는 감각 자료에 대한 지식이 대표적인데, '장미'와 같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은 물론, '붉음' 같은 속성이나 '다양성' 같은 관념 등도 직접적 인식의 대상이 된다. 러셀은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을 실제 경험을 통해 지각한다는 점에서 가장 확실하고 기초적인 지식으로 ⓑ보았다. 러셀은 명제를 분석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장 확실한,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

기술에 의한 지식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기술에 의해 대상을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때 기술은 어떤 존재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서술하는 말이다. 기술에 의한 지식은 그 기술에 부합하는 대상의 존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한 것에서부터 추론해 아는 것이라는 점에서 직접적 인식에 기반하며, 우리의 지식이 개인적 경험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술에 의한 지식은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과 달리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

러셀은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된 명제의 경우에도 명제의 분석을 통해 명제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가령 ㉮'현재 프랑스의 왕은 남성이다.'라는 명제를 보면 프랑스는 현재 군주제가 아니므로 '현재 프랑스의 왕'이라는 기술은 지시하는 대상이 없다. 이럴 경우, 러셀은 지시하는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되면 명제 자체가 거짓이라고 봄으로써 '현재 프랑스의 왕은 남성이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리오타르는 세계가 다원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세계를 이질적인 언어 게임이 공존하는 장으로 이해하였다. 리오타르는 절대적 원리나 권위에 의해 진리가 정당화되는 것을 부정하며, 어떤 하나의 보편적 체계로 세계를 온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리오타르는 언어에 주목하여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리오타르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언어 게임이라고 하였다. 이는 게임마다 임의로 만들어지는 고유의 규칙이 있듯이,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언어 사용자들의 암묵적 계약에 의한 고유의 규칙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어는 그 사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언어 게임은 과학적 언어 게임, 윤리적 언어 게임 등 그 종류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는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수행하는 집단들이 각자의 문화를 지닌 채 공존하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리오타르는 서로 다른 언어 게임 간에는 공약불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공약불가능성이란 공통적인 척도로 묶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질적인 언어 게임은 공통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공통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거나 상호 비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언어 게임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리오타르는 언어 게임 간의 이질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언어 게임 간의 합의가 어렵다는 것은 문장 우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문장 우주 안에는 발신자, 수신자, 지시되는 대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간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장 우주는 다의성을 ⓔ지닌다. 가령 '정의'라는 언어 기호는 발신자, 수신자가 누구이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리오타르의 시각에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은 문장 우주 안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 게임 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리오타르는 각기 다른 언어 게임에 속한 ㉡지식들이 공통된 기준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한 지식이 속한 언어 게임의 규칙을 다른 지식이 속한 언어 게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지식에는 대표적으로 서사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이 있다. 서사적 지식은 신화를 통해 자연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공동체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 등을 이르고, 과학적 지식은 증명을 통해 진술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지식을 이른다. 이때 서사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각 지식이 속한 언어 게임의 규칙을 따른다. 이는 서사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우선시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하고 각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지식에 대한 철학자의 이론을 설명하고 이의 배경이 된 사회적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지식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세계와 지식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지식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고 지식의 발달 과정을 통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 과학이나 윤리 등 서로 다른 영역도 공통의 평가 방식을 지닌다.
② (가): 직접적 인식의 대상에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뿐 아니라 속성이나 관념도 포함된다.
③ (나): 언어 게임은 종류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④ (나): 서로 다른 언어 게임 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⑤ (나): 문장 우주 안에 있는 구성 요소 간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다.

*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은 개인적 성격을 지닌다.
㉡: 과학적 지식은 공동체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성격을 지닌다.
② ㉠: 사물에 대한 지식은 진리에 대한 지식의 바탕이 된다.
㉡: 서사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우선시될 수 없다.
③ ㉠: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은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환원된다.
㉡: 서사적 지식은 증명이 바탕이 되어 성립된다.
④ ㉠: 모든 지식은 직접 대면한 당사자 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없다.
㉡: 가장 대표적인 지식은 자연의 상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 지식은 사물을 서술하는 말을 통해 대상의 존재를 추론해 형성된다.
㉡: 과학적 지식은 공동체 내부의 신화가 바탕이 될 때 형성된다.

*7.*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스트로슨은 문장의 참과 거짓은 문장의 분석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문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경우에만 문장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프랑스가 군주제가 아닌 상황임을 전제로 ㉮에 대한 러셀과 스트로슨의 입장을 비교해 볼까요?

① 러셀은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없다고 보았고, 스트로슨은 문장이 다루고 있는 대상이 실재할 때 ㉮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② 러셀은 명제의 분석을 통해 ㉮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고, 스트로슨은 문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③ 러셀은 지시하는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고, 스트로슨은 문장이 구체적 상황 속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④ 러셀은 스트로슨과 달리 기술에 지시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⑤ 스트로슨은 러셀과 달리 문장이 사용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문장 자체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8.*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학습 활동]**

다음 상황에 러셀과 리오타르의 관점 적용해 보기

> A는 길을 걷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A는 사람들이 폭죽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소리가 폭죽 소리임을 알았다. 폭죽놀이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갔지만 여전히 폭죽 소리는 들렸다. A는 자신의 마을에서 매년 하는 폭죽놀이를 생각하며 그 소리를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로 여겼다. 그때 다른 마을에 사는 B는 폭죽놀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A와 만나 폭죽 소리를 들었다. B가 A에게 "이 소리는 풍선 터지는 소리구나."라고 말하자 A는 "이 소리는 폭죽 소리야."라며 정확한 사실을 알려 주었다. B의 마을에서는 폭죽 소리가 멧돼지를 쫓는 데 쓰였기 때문에, B는 A에게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하였다.

① 러셀의 관점에서 보면, A가 폭죽놀이를 보면서 자신에게 들리는 소리가 폭죽 소리임을 인식한 것은, 실제 경험을 통해 지각하여 얻은 사물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것이겠군.
② 러셀의 관점에서 보면, B가 자신이 들은 소리를 풍선이 터지는 소리라고 한 것은, 두 소리 간의 관계를 세계의 사실 관계와 일치하게 판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거짓이겠군.
③ 러셀의 관점에서 보면, A가 폭죽놀이가 안 보일 때 "이 소리는 폭죽 소리야."라고 한 것은, 직접 대면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계와의 대응 관계를 알 수 없는 명제이겠군.
④ 리오타르의 관점에서 보면, A로부터 "이 소리는 폭죽 소리야."라는 말을 듣고 B가 위험한 상황을 떠올린 것은, 언어 기호가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 것이겠군.
⑤ 리오타르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폭죽 소리를 A는 즐거운 상황, B는 위험한 상황과 관련된 소리로 여기는 것은, 언어 게임 간의 공약불가능성으로 인해 공통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겠군.

*9.* 문맥상 ⓐ ~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① ⓐ: 돈만 <u>아는</u> 사람을 자린고비라 부른다.
② ⓑ: 손해를 <u>보면서</u> 장사를 할 수는 없지.
③ ⓒ: 그의 노래 실력은 프로의 수준을 이미 <u>넘었다</u>.
④ ⓓ: 해안을 <u>따라</u> 올라가니 내가 생각한 길이 나왔다.
⑤ ⓔ: 나는 어머니께서 주신 목걸이를 늘 몸에 <u>지니고</u> 다닌다.

**[10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카메라 등의 광학 기기에 쓰이는 볼록 렌즈는, 물체에서 반사되어 렌즈로 입사한 광선들을 수렴시킨다. 물체 표면의 한 점인 물체점에서 렌즈로 입사한 여러 광선이 굴절하여 수렴하는 점을 상점이라고 한다. 렌즈로 입사한 모든 광선이 하나의 상점에 수렴한다면 상은 뚜렷한 점의 형태로 맺히지만, 하나의 상점에 수렴하지 않으면 상이 흐려지거나 일그러져 보이는 수차 현상이 ⓐ 발생한다. 특히 물체점이 광축에서 멀리 떨어지면 렌즈에서 굴절된 광선들은 서로 다른 두 상점에 수렴하게 되어 흐릿한 상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비점 수차에 ⓑ 해당한다.

광축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서 렌즈 면에 수직인 가상의 직선이다. 물체점이 광축 위에 있고, 렌즈가 회전 대칭성을 지니며, 광선들이 하나의 상점에 수렴할 경우 뚜렷한 상이 맺힌다. 이때 회전 대칭성이란 광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도 항상 원래의 형태와 겹쳐지는 성질이다. 물체점으로부터 렌즈로 입사한 광선들의 집합인 광선 다발은 물체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원뿔 형상을 띤다. 렌즈 중심으로 ⓒ 향하는 광선인 주광선은 광선 다발을 대표하는데, 주광선은 광축을 따라 렌즈 중심으로 입사하고 광선 다발의 형상은 광축을 중심으로 회전 대칭성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들로 광선 다발을 나누었을 때, 광선들의 입사 양상이 어떤 평면에서든 동일해진다. 이때 각 평면에서의 광선의 굴절 양상 또한 서로 동일해져, 전체 광선 다발은 광축 위에 있는 하나의 상점에 수렴하게 된다.

반면 물체점이 광축에서 멀리 벗어나면 주광선은 광축을 따라 입사하지 않게 되며, 광선 다발의 형상은 광축을 기준으로 회전 대칭성을 보이지 않게 되어 비점 수차가 발생한다. 이때 광선 다발의 수렴 양상을 살필 수 있게 하는 평면이 자오면과 구결면이다. 자오면은 광축과 주광선을 포함하는 단 하나의 평면이며, 광축을 중심으로 물체점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드러낸다. 구결면은 자오면과 수직인 평면으로, 광축을 포함하지 않으며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다. 자오면 위에 있는 광선들인 자오 광선과 구결면 위에 있는 광선들인 구결 광선은 입사 양상이 다르며, 이에 따라 굴절 양상도 다르다. 이 때문에 광선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수렴하게 되는데, 자오 광선이 수렴하는 점을 자오 상점, 구결 광선이 수렴하는 점을 구결 상점이라고 한다. 이때 자오 상점이 구결 상점보다 렌즈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

자오 상점과 구결 상점 사이의 거리인 비점 격차가 커질수록 비점 수차는 심해진다. 비점 격차는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제곱, 즉 물체점에서 광축까지 수직으로 그은 선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오 상점부터 구결 상점까지의 임의의 지점에서 맺히는 상의 형상은, 같은 지점에서 광선 다발을 광축에 수직인 면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의 형상과 ⓓ 동일하다. 자오 상점에서 맺히는 상을 일차상이라고 하고, 구결 상점에서 맺히는 상을 이차상이라고 한다. 일차상과 이차상은 모두 선분의 형상인데, 일차상은 구결면 위에 놓여 주광선과 수직 관계를 이루고, 이차상은 자오면 위에 놓여 주광선과 수직 관계를 이룬다. ㉠ 이때 일차상과 이차상은 서로 수직이다. 비점 격차가 커질수록 일차상의 길이와 이차상의 길이는 길어진다. 일차상과 이차상 사이에 맺히는 상의 대부분은 타원의 형상을 띠지만, 중간 부근에 원형을 띠는 유일한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의 상을 최소 착란원이라고 한다. 최소 착란원은 광선들이 하나의 상점에 수렴할 때 형성되는 상과 형태가 가장 ⓔ 유사하며, 일차상과 이차상 사이에 맺히는 상 중 가장 뚜렷하다. 비점 격차가 클수록 최소 착란원은 크기가 커지면서 흐려진다.

*1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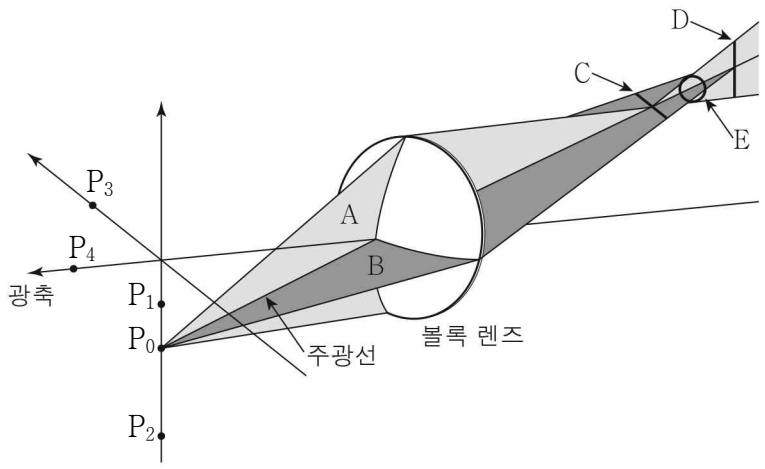
① 상점은 렌즈로 입사하는 여러 광선들이 수렴하는 점이다.
② 일차상과 이차상 사이에 맺히는 상의 대부분은 타원의 형상을 띤다.
③ 광축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서 렌즈 면에 수직인 가상의 직선이다.
④ 최소 착란원은 일차상과 이차상 사이에서 맺히는 상 중 가장 뚜렷하다.
⑤ 자오면은 물체점이 주광선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드러낸다.

*11.*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의 일부이다.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다음은 비점 수차가 발생한 상황을 나타낸 그림이다. A는 광축과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 B는 A와 수직이며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다. C, D는 각각, A와 B 중 한 평면 위에 놓여 선분의 형상으로 맺히는 상을, E는 원형을 띠는 상을 가리킨다. $P_0$, $P_1$, $P_2$, $P_3$는 모두 광축과 수직인 축 위에 있으며, $P_4$는 광축 위에 있다. $P_0$에서 광축까지의 거리는 $P_1$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두 배이고, $P_2$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절반이다. 현재 물체점은 $P_0$에 놓여 있다.

(단, 렌즈는 회전 대칭성을 지니며 그 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물체점을 $P_1$으로 옮긴다면, E는 물체점이 $P_0$에 있었을 때보다 더 뚜렷하겠군.
② 물체점을 $P_2$로 옮긴다면, C에서 D까지의 거리는 물체점이 $P_0$에 있었을 때의 4배가 되겠군.
③ 물체점을 $P_3$로 옮겼을 때 C의 길이가 길어졌다면, $P_0$에서 광축까지의 거리가 $P_3$에서 광축까지의 거리보다 길겠군.
④ $P_3$에서 광축까지의 거리가 $P_0$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와 같다면, 물체점을 $P_3$로 옮겼을 때 E의 크기는 변하지 않겠군.
⑤ 물체점이 $P_0$에 있을 때와 달리 $P_4$에 있다면,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는 광선들의 입사 양상은 어떤 평면에서든 동일하겠군.

*12.*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차상이 이차상보다 렌즈의 중심에서 더 멀리 맺히기 때문이다.
② 물체점으로부터 렌즈로 입사한 광선들의 집합이 원뿔 형상을 띠기 때문이다.
③ 서로 수직 관계인 구결면과 자오면 위에 각각 일차상과 이차상이 놓이기 때문이다.
④ 물체점의 위치가 변경되면 주광선 또한 달라져 자오면과 구결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⑤ 렌즈가 일차상을 기준으로 회전하였을 때 원래의 형태와 수직을 이루는 성질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13.* 문맥상 ⓐ ~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생겨난다
② ⓑ: 어울린다
③ ⓒ: 나아가는
④ ⓓ: 똑같다
⑤ ⓔ: 비슷하며

**[14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와 점포 등이 공존하는 집합건물이 보편화되었다. 민법의 개별 소유와 공동 소유의 내용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하나의 건물 안에서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공간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간이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집합건물법이 제정되면서 구분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통해 집합건물 내의 다양한 권리관계를 명료하게 하여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분소유권은 전유부분을 개별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 소유권을 의미하는데, 전유부분은 건물 내에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모두 갖춘 부분이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이라고 한다. 이때 구조상 독립성이란 각 건물 부분이,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과 같이 건물을 구성하고 있지만 쉽게 이동되거나 제거될 수 없는 부분에 의해, 공용부분이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과 차단된 것을 말한다. 이용상 독립성이란 해당 부분이 다른 전유부분을 통하지 않고도 공용부분이나 외부로 출입할 수 있어, 독립된 세대, 점포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 행위가 필요하다. 구분 행위란, 건물을 분양하는 사람이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행위는 분양 계약, 건축물대장 기재, 등기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 행위가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공용부분에는 복도, 옥상, 공동 현관 등의 건물 부분과, 엘리베이터와 같은 건물의 부속물이 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한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자동으로 얻게 되는 권리가 바로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이다. 공용부분의 지분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전체 전유부분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결정되며, 공용부분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역시 공용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공간도 규약을 통해 공용부분으로 지정하여 노인정, 공동 휴게 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때는 공용부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구분소유권의 주체인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특성 때문에 개별 소유 대상인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는 있지만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단체 규율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건물의 유지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 등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별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을 확장하는 것도 건물의 안전을 해치거나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공용부분의 형태나 기능 등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안전 등을 사유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개인이 단독으로 훼손된 공용부분을 복구하는 보존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단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전유부분에 하자가 생긴 경우라도, 하자의 원인이 불분명할 때에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여기고 구분소유자의 공동책임으로 보아 관리단에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가 생긴 원인이 전유부분에 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수, 난방 불량 등의 원인을 건물 전체의 구조나 공용 설비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A]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결정은 관리단 집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별다른 절차가 없어도 설립된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공동 관리를 위한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이다. 관리단에서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구분소유자 전원은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가지는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이 된다. 관리단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관리단을 대표해 관리단의 결의 결과를 집행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14.*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건물을 분양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
②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는 무엇일까?
③ 공용부분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④ 건물의 부속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예는 무엇일까?
⑤ 전유부분을 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의결권의 종류는 무엇일까?

*15.* 구분소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 행위가 필요하다.
② 구분소유권은 전유부분을 개별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다.
③ 구분소유권은 집합건물법의 한계로 인해 등장하게 되었다.
④ 구분소유권의 주체는 전유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다.
⑤ 구분소유권을 가지면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자동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얻게 된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아파트는 고층일수록 각 호실의 전유부분 면적이 더 넓다. 관리단은 주민 복지를 위해 규약을 통해 5층의 한 호실을 공동 휴게 공간으로 지정하였다. 3층 301호 소유자 갑은 공동 휴게 공간 내부에 철거하기 쉬운 가림막을 설치하고 복도로 연결되는 새로운 출입문을 내어 개인 작업실을 만들고 싶어 했다.

5층 501호 소유자 을은 우연히 공동 현관의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을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깨진 유리를 급하게 새것으로 갈아 끼우고 관리 사무실에 알렸다. 또한 을은 자신의 집 천장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기술자를 불러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단,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공동 휴게 공간으로 사용한 호실은 공용부분임을 등기했겠군.
② 공동 휴게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갑보다 을이 더 크겠군.
③ 을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하자를 수리하는 비용을 관리단에 청구할 수 있겠군.
④ 갑이 만들고 싶어 한 개인 작업실은 구조상 독립성은 있지만 이용상 독립성이 없겠군.
⑤ 깨진 유리를 교체한 을의 행위는 훼손된 공용부분을 복구하는 보존행위로 볼 수 있겠군.

*17.*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다.
③ 관리단 구성원이 특정 인원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④ 관리단은 집합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이다.
⑤ 관리단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

**[18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환아이**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당분간 조업을 전면 중단하고 휴무라니…… 그것도 전혀 예고 없이 이 아침에 갑자기.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치뜬 채 예의 ⓐ 공고문을 되풀이해 읽었다. 입사 이래 만 이 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혹심한 불경기라고 **쥐꼬리만한 사환 봉급**까지 삼십 프로나 **에누리하여 지급**하는 소동을 벌였던 지난 여름에도 노랭이 사장은, 그러나 조업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물며 지금은 구정 대목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라 공급이 엄청나게 달리는 판인 것이다.

사환아이는 영하의 추위 속에 오들오들 떨며 서 있었다. 정말 이대로 돌아가 버려도 괜찮을까? 견고하게 닫혀져 있는 철제 대문과 그 위에 나붙어 있는 종이쪽을 몇 번이고 새겨 보면서 그녀는 무작정 떨기만 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것이 느껴져 왔다. 어쨌든 오늘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과히 싫지 않았다. **제대로 난방도 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부대낄 것인가. ㉡ 해묵은 천식을 앓고 있는 그 늙다리 총무부장은 아마도, 서너 시간마다 탄불을 갈아 넣으라고 성화일 것이다. 그런다고 십구공탄 난로가 얼마나 더 더워질 것인가. 필경에 고물 석유난로까지 꺼내다 놓고는 기름을 사와라, 심지를 소제하라 한바탕 난리를 피울 것이었다.

정말 지겨운 일과들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따위에서 문득 풀려난 것이다. 그리하여 **사환애**는, 이 아침의 **돌연한 사태**가 적어도 당장에는 **그다지 해로울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기회에, 직장에 나가고 있는 **친구들이나 죄 순방해 보**기로 하자,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 그러고는 오랜만에 영화라도 한 프로 감상해야지. 아니야, 어느 극장에서던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리사이틀을 하고 있다지. 그래, 명자나 수연일 불러내서 거길 가야지. 고 계집애들도 미치게 좋아할 거야…….

갑자기 즐거워진 마음으로 그녀는 돌아섰다. 그러고는 막 발을 떼 놓으려다 말고 멈추어 섰다. 타과 소속의 사환애들 서넛이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영희 너, 왜 그러구 있니?"

그들 중의 하나가 말했다.

"벌써 퇴근하는 건 아닐 게구 말야."

영희는 대답 대신 문제의 공고문을 코끝으로 가리켜 보였다. 그 얼굴엔 즐거움이 가득 넘치고 있었다.

공고문을 본 사환애들은 영희가 그랬던 것처럼 멍청한 표정들을 지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멀거니 쳐다보면서, 가쁜 호흡들을 가라앉히느라 색색거렸다.

"얘, 참 별일이다. 그지?"

영희의 보충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들 중 하나가 말하고 갑자기 헤헤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 노랭이 사장님께서 날씨 탓으로 그만 헤까닥한 건 아닐까?"

기묘하게 일그러졌던 표정들을 풀고 그들은 환하게 웃었다.

"정말 별일이다 얘. 그러니깐 우리더러 당분간 집에서 푹 쉬라, 그런 뜻이지?"

"야, 푹 쉬는 거 좋아하지 마!"

여자들의 수다 속에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던 영업과 소속의 **남자 사환애**가 퉁명스레 끼어들었다.

"왜에?"

여자애들이 물었다.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야. 생각들 해보라구. 이건 무슨 **휴가 같은 게 아니**란 말야. **당분간 조업**을 **중단**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결국 회사 문을 처닫는단 소리** 아냐?"

"그래 아까 수위장 아저씨도 그렇게 말했어."

영희가 고개를 조악거렸다.

(중략)

모든 문제가 확연하게 밝혀진 것은 다섯 시가 훨씬 넘어서였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전해진 것은, 그날 저녁의 회사 앞 다방이나 주점, 또는 귀가하는 만원 버스 안에서였다. 사장은 결코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또한 일정이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외유 기간 동안 본가로도 국제전화 한 통 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당일 밤의 **숙직 사령 한비서**는 누구로부터 그런 터무니없는 전화를 받았던가? 실상 통화를 한 장본인은 수위장 김씨였음이 밝혀졌다. 그는 오밤중에 걸려 온 국제전화를 통해 사장이라는 말만 듣고는 부리나케 한비서를 깨웠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난처하게도 한비서는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통금이 가까워서야 술이 억병으로 취해서 기어든 그는 그 길로 곧장 잠에 곯아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김씨가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깨어날 기미가 영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남의 사정 잘 헤아릴 나이가 된 **수위장 김씨**는 하는 수 없이 **스스로 비서 행세**를 하면서 어물어물 통화를 했다. 결정적인 잘못은 거기서 빚어졌던 것이다. ㉣ 경황없이 통화를 끝낸 그는 식은땀이 촉촉하게 배어난 손으로 내용을 메모해 뒀다. 그러곤 새벽녘에야 간신히 한비서를 깨우는 데 성공하여 그걸 전했노라고 실토했다.

—내가 귀국할 때까지 모든 일을 중지할 것. 사장.

이것이 한비서가 받은 ⓑ 메모의 전부였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당분간 일체의 조업을 중단하고 휴무함. 사장백'이라는 공고문이 예의 녹슨 철제 대문 위에 나붙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굳이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일이다. ㉤ 이 대목에서만은 다들 쓴 입맛만 다셨을 따름이었다. 어쨌든 회사는 당장 다음날부터 **정상 업무를 한다고 공시**되었지만, 그러나 한비서와 부사장의 인책 사임의 소문과 더불어 회사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전사원들**의 마음을 어둡게 사로잡았다. 그 불안감은 이제야말로 보다 확실한 것으로서 정말 **실업의 위기**가 몰아닥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저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하여 회사가 그간에 입은 손실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으므로 적어도, 당장에는 회사가 이를 타개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문들이었기 때문이었다.

– 이동하, 「모래」 –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구정 대목을 앞두고 있어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었다.
② 사환아이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 떨기만 하다가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다.
③ 영희는 타과 소속의 사환애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자 그들을 멈춰 세웠다.
④ 사장은 외유 기간 동안 일정이 바빠서 본가로 국제전화 한 통 할 기회가 없었다.
⑤ 회사에는 한비서와 부사장의 사임에 대한 소문이 돌게 되었다.

*19.*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특정 인물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서술하고 있다.
② ㉡: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그 인물이 보일 법한 행동을 짐작하여 서술하고 있다.
③ ㉢: 특정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 특정 인물의 행동들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을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20.*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에 담긴 정보는 ⓑ에 잘못된 정보가 기록되는 원인이 된다.
② ⓐ는 ⓑ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③ ⓐ의 존재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의 존재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④ ⓑ가 작성된 시점은 ⓐ가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시점보다 앞선다.
⑤ ⓑ는 인물 간 갈등을 표면화하는 계기가 되고, ⓐ는 인물 간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사소한 착오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을 통해 산업화 시대의 단면을 보여 준다. 부당한 현실에 익숙해진 채 살아가던 노동자들이 사건에 대해 보이는 문제의식의 차이는 불안정한 노동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이 작품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대처와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심리적 동요를 재현함으로써 산업화 시대의 취약한 기업 구조의 실상을 드러낸다.

① '쥐꼬리만한 사환 봉급'마저 '에누리하여 지급'받았던 '사환아이'가 '제대로 난방도 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서, 부당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의 현실을 엿볼 수 있군.
② '사환애'가 '돌연한 사태'를 '그다지 해로울 게 없다'고 생각하며 '친구들이나 죄 순방해 보'고자 하는 것에서, 당면한 사건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부족한 노동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③ '남자 사환애'가 '당분간 조업'이 '중단'된 상황을 '휴가 같은 게 아니'라 '결국 회사 문을 처닫는단 소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불안정한 노동 현실에 대한 노동자의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군.
④ '숙직 사령'인 '한비서'가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수위장 김씨'가 '스스로 비서 행세'를 하며 통화한 것에서, 기업이 직면한 위기에 직접 대응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⑤ 회사가 '정상 업무를 한다고 공시'된 상황에도 '전사원들'이 '실업의 위기'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에서, 취약한 기업 구조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엿볼 수 있군.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으스름히 안개가 흐른다. **거리가 흘러간다**. 저 전차, 자동차, 모든 바퀴가 ㉠어디로 흘리워 가는 것일까? 정박할 아무 항구도 없이, 가련한 많은 사람들을 싣고서, 안개 속에 잠긴 거리는,

거리 모퉁이 붉은 포스트 상자를 붙잡고 섰을라면 모든 것이 흐르는 속에 ㉡어렴풋이 빛나는 가로등, 꺼지지 않은 것은 무슨 상징일까? 사랑하는 동무 박(朴)이여! 그리고 김(金)이여! 자네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끝없이 안개**가 흐르는데,

'새로운 날 아침 우리 **다시** 정답게 **손목을 잡아 보**세' 몇 자 적어 **포스트 속에 떨어뜨**리고, 밤을 새워 기다리면 **금휘장(金徽章)**에 **금단추**를 삐었고 거인처럼 **찬란히 나타**나는 **배달부**, 아침과 함께 즐거운 내림(來臨),

이 밤을 하염없이 안개가 흐른다.

– 윤동주, 「흐르는 거리」 –

**(나)**

해거름녘 쓸쓸한 사람들과 흐르던
따뜻한 강물이 내게로 왔네
봄 눈 파릇파릇한 숲길을 지나
아득한 강물이 내게로 왔네

이십도의 따뜻하고 해맑은 **강물**과
이십도의 서늘하고 아득한 **강물**이
㉣서로 겹쳐 흐르며 **온누리 껴안**으며
**삼라의 뜻을 돌아** 내게로 왔네

사흘 낮 사흘 밤 **잔잔한 강물 속에**
어여쁜 **숭어떼 미끄럽게 춤**추고
부드러운 물미역과 수초 사이에서
적막한 날들의 수문이 열렸네

㉤늦게 뜬 별 둘이 살 속에 박혔네
달빛이 내려와 이불로 덮었네
저물 무렵 머나먼 고향으로 흐르던
따뜻한 강물이 내게, 내게로 왔네
**외로운 사람들의 낮과 밤 지나**
**기나긴 강물**이 내게, **내게로 왔**네

사십도의 **따뜻하고 드맑은 강물** 위에
열두 대의 **가야금소리 깃**들고
사십도의 서늘하고 아득한 강물 위에
스물네 대의 바라춤이 실렸네
그 위에 우주의 동행이 겹쳤네

– 고정희, 「따뜻한 동행」 –

**(다)**

집의 남쪽 허물어진 담 그늘에 난초가 있어 싹이 돋아났다. 무너진 흙이 덮고 풀 덩굴이 둘러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 난초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주인이 동자를 시켜 풀 덩굴을 치우고 흙을 거두어내서 흙단을 만들어 높이며 귀하게 여겼다.

객이 곁에 있어 웃으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난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침 난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대저 이 난이란 것은 오로지 흙더미 가운데서 살고 풀 덩굴 곁에서 자라며, 가려 그늘진 곳에서 그윽이 빼어나니, 이런 까닭으로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너진 흙을 평탄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고, 우거진 풀을 베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고, 우거져 그늘진 것을 베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귀함이 있는 곳에는 이름이 반드시 따라 다니는 것이니, 장차 이름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상서롭고 향기로운 풀이다.'고 하면서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코를 대어 냄새를 맡으려 할 것이니, 마침내 그 천성(天性)을 없애는 것이니 어찌 난의 행복이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주인이 말하기를,

"비록 그러하나, 이 난의 됨됨이는 풀과 다르니, 오히려 이 난에서 풀 덩굴의 울창함으로 덮이게 하면 마침내 기이함을 볼 수 없게 되니 이것이 또한 난의 행복인가?"

라고 하니, 객이 또 웃으면서 말하기를,

"무슨 걱정인가. 대저 이것은 무릇 오직 거처한 곳이 그윽한지가 오래되었으니, 장차 거의 나타나는 것은 바람이 번식하게 하고 비가 윤택하게 하며, 뿌리는 굳어지고 잎은 강해집니다. 바야흐로 가을에 서리와 이슬이 내려 온갖 풀들이 말라 죽으나, 당신의 정원에는 어리고 푸른 것으로 있고, 비로소 겨울의 싸라기눈이 이미 내려 모든 기운이 폐색해지나, 그대의 방에는 검고 향기로운 것이 있을 것이니, 비록 그 기이함을 보지 않고자 해도 그럴 수 있는가? 무릇 물건이 그윽하게 숨음과 나타남에는 때가 있는데, 그대는 어찌 조급히 서두르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주인이 객을 돌아다보며 크게 탄식하고 동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멈추어라. 대저 저 사람의 말은 거의 통달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 남유용, 「난설」 –

*22.*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② (나)는 가정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고 있다.
③ (다)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나)는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⑤ (가), (나), (다)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은 '전차, 자동차, 모든 바퀴'가 가는 곳을 알 수 없음을 부각하고 있다.
② ㉡은 '거리 모퉁이'의 '가로등'의 빛이 환하지 않은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③ ㉢은 '사랑하는 동무'들을 '안개'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된 순간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은 '강물'들이 '겹쳐' 흐르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은 '별 둘'이 알맞은 때를 지나 '뜬'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시적 상상력은 현실 세계를 새로운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시적 세계를 창조하는 사고 작용이다. 시에서는 시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추상적인 인식이나 감정을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상태로 이미지화하는데, 이때 시적 상상력은 대상이 갖는 기존의 속성에 제한받지 않고 그 대상에 새로운 속성을 연결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시적 대상의 이미지의 반복, 과장, 대비, 전이 등을 통해 시적 세계는 형상화된다.

① (가)의 '거리가 흘러간다'는 표현은, 대상이 갖지 않는 속성을 활용하여 거리의 상태를 새로운 이미지로 재구성한 것이겠군.
② (나)의 '기나긴 강물'이 '외로운 사람들의 낮과 밤 지나' '내게로 왔'다는 표현은, 대비되는 시간을 활용하여 소외된 존재와 화자가 강물을 통해 연결되는 시적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군.
③ (가)의 '안개'가 '끝없이' 흐른다는 표현과 (나)의 '강물'과 '강물'이 '온누리'를 '껴안'고 '삼라의 뜻을 돌아'온다는 표현은, 과장을 활용하여 현실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의 동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④ (가)의 '다시' '손목을 잡아 보'자는 편지를 '포스트 속에 떨어뜨'린다는 표현은 재회에 대한 기대를, (나)의 '잔잔한 강물 속에' '숭어떼'가 '미끄럽게 춤'춘다는 표현은 강물이 품은 생명력을 이미지화한 것이겠군.
⑤ (가)의 '금휘장'에 '금단추'를 단 '배달부'가 '찬란히 나타'난다는 표현은 감각의 전이를, (나)의 '따뜻하고 드맑은 강물' 위에 '가야금소리'가 '깃'든다는 표현은 감각적 이미지의 반복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긍정적 이미지를 재구성한 것이겠군.

*25.* (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주인은 담 그늘에 돋아난 난초의 됨됨이가 풀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② 객은 난초가 바람과 비를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③ 주인은 객의 말이 거의 통달했다고 인정하며 동자가 하던 일을 멈추게 했다.
④ 동자는 주인의 지시에 따라 풀 덩굴을 치워 숨겨진 난초가 드러나게 만들었다.
⑤ 지나가는 사람은 무너진 흙과 풀 덩굴 때문에 난초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6.* 다음에 따라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문학 작품의 감상은 일종의 의사소통 행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자나 인물의 말을 통해 화자의 정서나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에서는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다)에서는 대상을 대하는 인물들의 입장을 통해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지요.

① (가)에서 화자는 '많은 사람들'이 '정박할' '항구'가 없는 상황을 통해 유랑하는 삶에 대한 연민을, (다)에서 글쓴이는 '난초'를 귀하게 여기는 주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객의 말을 통해 존재의 본성을 인위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군.
② (가)에서 화자는 '안개 속에 잠긴 거리'의 '모든 것이 흐르는' 모습을 통해 쇠락한 도시 문명에 대한 비애를, (다)에서 글쓴이는 '흙단'을 만드는 주인을 비판하는 객의 말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군.
③ (가)에서 화자는 '붉은 포스트 상자'를 붙잡고 서는 행위를 통해 정착하고자 하는 소망을, (다)에서 글쓴이는 '난초'가 '풀 덩굴'에 있는 상황을 지적하는 객의 말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④ (가)에서 화자는 '꺼지지 않은 것'의 '상징'에 대한 의문을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에서 글쓴이는 '난초'의 '냄새'를 맡는 행위를 긍정하는 객의 말을 통해 대상과 교감하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군.
⑤ (가)에서 화자는 '밤'을 새워 '아침'을 기다리는 행위를 통해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성찰을, (다)에서 글쓴이는 '풀'이 '서리와 이슬'을 맞을 상황을 걱정하는 객의 말을 통해 시련으로 인해 존재의 본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어와 청춘 소년들아 백발(白髮)보고 웃지마라
덧없이 가는 세월 넨들 매양 젊을소냐
적은덧 늙었으니 공(空)된 줄 알거니와
소문없이 오는 백발 귀밑이 반백(半白)이라
청좌없이 오는 백발 **털끝마다 점점 흰**다
**이리저리 혜여 보**니 **오는 백발 검을소냐**
위풍으로 제어하면 겁내야 아니올까
기운으로 쫓아보면 못이기어 아니올까
꾸짖어 물리치면 무색(無色)하야 아니올까
욕하야 거절하면 노여하야 아니올까
ⓐ 긴 창으로 찔러보면 무서워 아니올까
드는 칼로 내쳐 치면 혼이 나서 아니올까
휘장으로 가려볼까 방패로 막아볼까
소진(蘇秦) 장의(張儀) 구변으로 달래면 아니올까
좋은 음식 갖초 차려 인정 쓰면 아니올까
**할 수 없다** 저 **백발은 사람마다 겪는**고나
(중략)
육십갑자(六十甲子) 곱아보니 덧없이 돌아온다
사시절 살펴보니 덧없이도 지나간다
**늙을사록 분한 마음 정할 수 바이 없다**
편작(扁鵲)이 불러다가 늙는 병 고칠손가
㉡ 불사약 얻어다가 쇠하지 않게 하야볼까
주사야도(晝思夜度) 생각하나 늙을 밧 할 수 없다
어와 설운지고 또 한말 들어 보소
꽃이라도 떠러지면 오는 나비 돌아 가고
나모라도 병이 들면 눈 먼 새도 아니 오네
거미라도 떠러지면 물것대로 돌아 가고
㉢ 옥식(玉食)도 쉬어지면 수채 구멍 찾아 가네
세상일 생각하니 만사가 허사로다

– 작자 미상, 「노인가(老人歌)」 –

(나)

**공도***라는 **백발**이요 못 면할손 죽음이라
천황 지황 인황 후에 복희 신농 헌원씨며 요순우탕 문무주공 성덕 없어 붕하셨나* ㉣ 어리석다 진시황은 만리장성 굳이 쌓고 장수불사 하려다 여산의 고혼되고 구선하던 한무제도 승노반이 허사되어 육십사의 붕하였으니 수요장단이 재천이라 그러한 **도덕 영웅들은 유적이나 있거니와**
**우리 같은 초로인생*** 공수래공수거라 **아니 놀고 무엇 하**리

– 작자 미상 –

* 공도(公道): 공평하고 바른 도리.
* 붕하셨나: 돌아가셨나.
* 초로인생(草露人生):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다)

늙어 병든 몸이 이 산정(山亭)에 누워 있어
세간 만사를 다 잊어 버렸노라
다만당 바라는 일은 벗 오과다 하노라

<제2수>

벗이 올 이 없으니 ⓑ 동문(洞門)이 잠겨 있다
삼경(三逕) **송국죽(松菊竹)**을 내 호온자 즐기노라
**매일**에 이를 **즐기어니 늙는 줄을 어이** 알리

<제6수>

**늙는 줄을 내 모르니** 이내 몸이 한가하다
시비인들 내 알며 **영욕(榮辱)인들 내 알더냐**
㉤ 아마도 일단사 일표음*이야 내 분인가 하노라

<제7수>

– 김득연, 「영회잡곡(咏懷雜曲)」 –

* 일단사(一簞食) 일표음(一瓢飮):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

*27.*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대구의 방식을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② (나)는 나열의 방식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다)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다)는 모두,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8.*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세월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행동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② ㉡: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 대상의 상황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세상일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 역사적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며 인물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⑤ ㉤: 분수에 맞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29.*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화자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 대상이고, ⓑ는 화자가 바라는 것을 미루게 하는 대상이다.
② ⓐ는 화자가 꺼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상이고, ⓑ는 화자가 외부와 단절된 상태임을 알 수 있는 대상이다.
③ ⓐ는 화자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있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위축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상이다.
④ ⓐ와 ⓑ는 모두,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게 만드는 대상이다.
⑤ ⓐ와 ⓑ는 모두, 화자가 자신의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대상이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전 시가에서 노년의 삶은 화자가 늙음에 대해 성찰하고 현재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화자는 노년에 겪는 신체적 변화나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늙음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로 인식하며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한계를 자각한다. 이때 화자는 자신의 노년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삶에 가치를 두고 남은 인생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① (가)에서 '털끝마다 점점 흰' 머리를 '이리저리 헤여 보'아도 '오는 백발 검을소냐'는 것에서, 노년에 겪는 외면적 모습의 변화로 인해 늙음을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② (나)에서 '도덕 영웅들은 유적이나 있거니와' '우리 같은 초로인생' '아니 놀고 무엇 하'냐는 것에서, 다른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삶을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③ (다)에서 '송국죽'을 '매일' '즐기어니 늙는 줄을 어이' 아냐고 하는 것에서, 자연을 향유하며 노년의 삶을 긍정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④ (가)에서 '할 수 없다'며 '백발은 사람마다 겪는'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백발'이 '공도'라고 하는 것에서, 늙음을 자연의 섭리로 이해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⑤ (가)에서 '늙을사록 분한 마음 정할 수 바이 없다'고 하는 것과 (다)에서 '늙는 줄을 내 모르니' '영욕인들 내 알더냐'는 것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염왕**이 또 **명령**했다.

"그놈이 그리해도 승복하지 않으니 아주 형적이 없어지도록 **기름에 삶으라**."

귀졸이 명령을 듣고 큰 가마솥에 기름을 한 섬을 붓고 펄펄 끓이며 방주를 잡아넣으려 하니 방주가 겁이 나고 몹시 두려워 빌며 말했다.

"소신이 어리석어 부모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이제 **불효한 죄**로 형적도 없게 되었사오니 어찌 저의 죄를 모르겠습니까. 염라대왕의 넓으신 덕택으로 다시 세상에 내보내 주옵시면 **개과천선**해 부모를 지성으로 섬기겠나이다. 바라건대 소신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만일 말처럼 아니하거든 다시 잡아들여 즉시 삶으소서."

방주가 이렇듯 말하며 눈물이 비 오는 듯했다. 염왕이 그제야 불쌍히 여겨 특별히 용서하시며 말했다.

"네가 이미 죄를 알고 깨달았으니 십분 헤아려 놓아주겠노라."

하시며 황건역사에게 ㉠명령하셨다.

"저놈을 다시 풀어 주어라."

황건역사가 명령을 듣고 방주의 뺨을 한 번 치니 다시 완연한 사람의 몰골이 되었다. 그리고 황천강에 이르러 방주를 발로 밀어 차 물에 빠뜨렸다. 방주가 정신이 아득해 몸에 소름이 끼치며 마음이 전율해 참인지 꿈인지, 눈이 캄캄하고 살이 다 아프며 뼈가 녹는 듯했다. 정녕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듯 황연대각해 전일 부모 앞에서 하던 일을 다 뉘우치고 마음에서 효심이 솟아나며 부인 정 씨가 하던 말이 당연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했다.

눈을 떠 보니 동창은 아직 밝지 않았고 부인 정 씨는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방주가 일어나 부인에게 절하고 말했다.

"내가 어리석어 전일 부인의 지극한 말씀을 듣지 아니했는데 이제야 과연 깨달았으니 죄를 용서해 주시오."

부인이 일어나 기뻐하며 ㉡답례하고 말했다.

"군자의 말씀을 들으니 구름을 헤치고 다시 해를 보는 듯해 천첩의 큰 행복인가 합니다."

방주가 부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배우지 못해 무식하고 어리석은 일이 많으니 부인이 용서하시고 착한 도를 가르쳐 주시오."

부인과 더불어 부모의 침소로 가서 신성문안하고 땅에 엎드려 울며 말했다.

"불초자 방주는 전일에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부모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사오니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하오나 부모의 사랑 덕분에 목숨을 지금까지 보전한 것을 몰랐사오니 어찌 인륜이라 하겠습니까. 지금은 회과자책했사오니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아니하면서 지성을 다해 길러주신 은혜를 만분지일이나 갚을까 하나이다."

진사 부부가 방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A] "네가 저렇듯 깨달은 것은 천지신령이 도우심이며 방씨 가문을 빛내게 하고 늙은 우리 부부의 홍복인가 하노라. 네가 매사를 동동촉촉해 부모와 처자를 보전케 하며 우리 방씨 가문을 창성케 하라."

방주 부부가 절하고 물러나와 **그날부터** 갈성진력해 **공양하고** 의복지절을 지극히 하며 혼정신성하며 거처 출입을 **지성으로 돌보니 진사 부부**와 **인근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방주는 도적 무리를 평정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벼슬에 오른다. 이후 방주는 마대영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했지만 포로로 잡히고, 황제마저 적에게 포위된다.

선관이 **부인**에게 홍포와 화관을 주며 말했다.

"이는 **천상의 보배**라. 창검도 아니 들며,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고 물에 들어도 젖지 아니하는 것이라. 속히 **큰 공을 이루라**."

선관이 또 열여검과 홍선을 주며 말했다.

"이 부채는 조화가 무궁무진하니 적진을 향해 부치면 일시에 불이 일어날 것이니 부디 잘 간수했다가 급한 때를 당하거든 부치라. 국가의 사세가 급박하니 때를 잃지 말라."

선관이 검과 부채를 주고 간데없으니 부인이 공중을 향해 무수히 절했다. 문득 난데없는 백호가 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 부인이 기뻐하며 백호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네가 나를 위해 왔나 보구나."

부인이 백호의 등에 올라타고 집에 돌아와 부모 앞에 하직하고, 유 부인과 한 낭자와 더불어 작별하며 말했다.

[B] "그대들은 부모를 공양하시오. 나는 낭군과 함께 죽고자 하니 만일 하늘이 도우시면 낭군을 만나 무사히 돌아와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 볼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지하에서 서로 보기를 기약하오니 소첩을 조금도 생각하지 말고 부모를 모셔 상서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오."

부인이 눈물을 흘리니 유 부인과 한 낭자가 또한 슬픔을 이기지 못해 말했다.

"효열부인의 정성은 하늘이 알 것이나 여자의 약한 몸으로 전장에 나가 어찌 살아오기를 바라리오. 이제 영이별을 면치 못할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세 사람이 붙들고 서로 눈물을 흘렸다.

부인이 **그날로 길을 떠나 서평관**에 이르니 무수한 **적병이 명나라 진영을 에워싸**서 사면이 철통같으니 일개 여자의 몸으로 어찌하리오. **백호**에게 경계해 말했다.

"지금 황제께서 적 진중에 싸이시어 사직을 보전하기 어렵도다. 네 평생 힘을 다해 **나와 함께 큰 공을 이루**어 국가를 보전케 하고 낭군을 만나게 하라."

백호가 이윽히 듣다가 다시 적 군중에 달려들어 무수히 사람을 물어 죽이고, 부인은 열여검을 들어 풀 베듯하니 적졸들이 혼비백산해 일시에 흩어지고 말았다. **황제**께서 **적 진중에 싸여 거의 죽게** 되었는데, 문득 찬바람이 일어나며 동쪽에서 한 젊은 장수가 몸에 홍포를 입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백호를 타고 공중으로 달려들어 **무수한 적병을 물리**쳤다. 황제께서 정신을 차려 바라보시다가 신하를 돌아보며 물었다.

"저 장수는 분명 사람이 아니라 형용이 천신이다. 하늘이 도우시어 대명 사직을 보전코자 하시어 신장을 보내셨도다. 누가 알 자가 있으리오."

황제께서 못내 즐거워하셨다.

이때 부인이 적병을 물리치고 황제 앞에 엎드리니 황제께서 급히 단에서 내려와 부인에게 ㉢ 하례하며 말하셨다.

"과인이 덕이 없어 사직을 보전하지 못하고 적 진중에 싸여 거의 죽게 되었더니 천신이 굽어살피시어 잔명을 보전케하니 어찌 황감하지 아니하리오."

– 작자 미상, 「방주전」 –

*3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방주'는 황천강에 이르러 완연한 사람의 몰골이 되었다.
② '황제'는 젊은 장수가 나타나자 그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③ '부인'이 열여검을 들어 풀 베듯하자 적졸들은 혼비백산했다.
④ '부인'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백호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⑤ '방주'가 눈을 떴을 때 부인은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상대의 지위를 언급하며 자신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B]는 상대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있다.
② [A]는 구체적인 실익을 제시하여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고, [B]는 구체적인 명분을 들어 상대의 책임을 일깨우고 있다.
③ [A]는 상대의 선택이 가져온 영향을 언급하며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B]는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상대의 행동을 오해하고 있다.
④ [A]는 상대의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의 행동을 당부하고 있고, [B]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반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⑤ [A]는 상대의 성품에 기대어 자신에게 필요한 기회를 얻고자 하고 있고, [B]는 상대와 공유한 경험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상대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33.* ㉠ ~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방주는 ㉠을 따르는 황건역사의 꾸지람을 듣고, 부인은 ㉡을 통해 그동안의 희생을 보상받고자 한다.
② 방주는 ㉠을 통해 황건역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부인은 ㉢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을 염려한다.
③ 방주는 ㉠을 통해 염왕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황제는 ㉢을 통해 부인의 행적에 대한 감격을 드러낸다.
④ 부인은 ㉡을 통해 방주의 요청을 수용하고, 황제는 신하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 위해 ㉢을 행한다.
⑤ 부인은 ㉡을 통해 방주의 변화에 대한 만족을 드러내고, 황제는 ㉢을 통해 목숨을 부지하게 된 상황에 대해 감사를 드러낸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중심인물들이 시련에 대응하며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 시련은 인물이 자신을 성찰하거나 가치 실현을 위해 결심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초월적 존재는 인물의 성찰과 결심을 유도하고 그 결과 인물은 정당한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물의 윤리적 실천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되며 작품의 주제의식을 구체화한다.

① '염왕'이 '기름에 삶으라'고 '명령'하자 '불효한 죄'를 뉘우치며 '개과천선'하겠다고 비는 방주의 모습에서, 인물이 초월적 존재가 부여한 시련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② '그날부터' '진사 부부'를 '공양하고' '지성으로 돌보니' '인근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받는 방주 부부의 모습에서, 인물이 국가 질서의 회복을 위해 윤리적 실천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③ '부인'에게 '천상의 보배'를 건네며 '큰 공을 이루라'고 당부하는 선관의 모습에서, 인물이 정당한 가치 실현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초월적 존재가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그날로 길을 떠나' '적병이 명나라 진영을 에워싸'고 있는 '서평관'에 가서 '백호'에게 '나와 함께 큰 공을 이루'라고 말하는 부인의 모습에서, 인물이 국가적 위기를 계기로 가치 실현을 위한 결심을 했음을 알 수 있군.
⑤ '무수한 적병을 물리'쳐 '적 진중에 싸여 거의 죽게' 된 '황제'를 구해내는 부인의 모습에서, 인물이 시련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며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은 문장의 주어를 서술해 주는 기능을 가진 단어이다. 용언은 의미에 따라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인 동사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 형용사로 분류한다. 그런데 특정 어미들과의 결합 여부와 같은 활용 방식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를 분류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관형사형 어미 '-는',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려',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 등과 결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있다'는 활용 방식만으로는 품사를 분류하기 어렵다. '있다'가 '어떤 곳에 머무르다'의 의미인 경우는 동사의 활용 방식이 나타나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동사로 분류한다. 하지만 '있다'가 '소유하거나 존재하는 상태이다'의 의미인 경우는 관형사형이나 의문형 등에서 동사의 활용 방식이 나타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형용사로 분류한다. 그래서 '있다'의 품사를 분류할 때는, 동사의 활용 방식이 나타나더라도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맛있다'처럼 '있다'가 다른 어근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있다'가 본용언과 함께 쓰여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는, 본용언이 어떤 연결 어미와 결합하여 '있다'와 함께 쓰이고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고 있다'는 어떤 사건이 특정 시간 흐름 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진행상을 나타내고, '-아/어 있다'는 어떤 사건이 끝났거나 끝난 후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완료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고 있다'가 '입다'와 같이 신체에 무엇인가를 접촉하는 행위와 관련된 일부 동사와 결합하면 두 가지 동작상으로 해석되어 그 의미가 중의적인 경우가 있다.

'있다'는 중세 국어에서 '잇다'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자음 어미 앞에서는 '잇-'의 형태로 나타나고 모음 어미 앞에서는 '이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또한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는 '-고 잇/이시-'는 진행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유사하지만, '-아/어 잇/이시-'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경우와 완료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모두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3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그녀는 밤새 깨어 있었다.'의 '있었다'는 '-어 있다'의 형태로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 용언이다.
② '돌아다니지 말고 방 안에 가만있어라.'의 '가만있어라'는 동사의 활용 방식이 나타나지만 의미를 고려하면 합성 형용사이다.
③ '사람이 젊을 때는 모르던 것을 늙으면 알게 된다.'의 '젊을'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늙으면'은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④ '한창 크는 회사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의 '크는'과 '있는'은 동일한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고 있지만 의미를 고려하면 서로 다른 품사로 분류된다.
⑤ '그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의 '신고 있었다'는 '있었다'가 '-고 있다'의 형태로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와 관련된 동사와 결합하여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 됴ᄒᆞᆫ 香(향) 퓌우고 잇거니
[좋은 향 피우고 있었으니]
㉡ 그 믌ᄀᆞ새 平(평)ᄒᆞᆫ 돌히 잇더라
[그 물가에 평한 돌이 있더라]
㉢ 또 사ᄅᆞ미 講法(강법)ᄒᆞᄂᆞᆫ 짜해 안자 이셔
[또 사람이 강법하는 곳에 앉아 있어서]
㉣ 사ᄅᆞᄆᆡ 모ᄆᆞᆯ 得(득)ᄒᆞ고 부텨를 맛나 잇ᄂᆞ니
[사람의 몸을 득하고 부처를 만나고 있으니]
㉤ 이 山(산)애 이 고지 만히 이셔 香(향)내 머리 나ᄂᆞ니
[이 산에 이 꽃이 많이 있어 향내가 멀리 나니]

① ㉠을 보니, '-고 잇-'이 진행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② ㉡을 보니, '잇다'가 자음 어미 앞에서 '잇-'의 형태로 나타나며 형용사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을 보니, '-아 이시-'가 완료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④ ㉣을 보니, '-아 잇-'이 진행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을 보니, '잇다'가 모음 어미 앞에서 '이시-'의 형태로 나타나며 동사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군.

***37.***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조건]**

○ 관형어가 쓰일 것.
○ 안긴절이 한 번만 나타날 것.
○ 주체 높임 표현이 나타날 것.

① 할머니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귀가 어두우시다.
② 나는 밥을 먹으면서 동시에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
③ 아버지께서 식사를 준비하시려고 부엌에 들어가셨다.
④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고향으로 꼭 내려오라고 당부하셨다.
⑤ 형이 오기만을 기다리시던 어머니께서는 온 집 안을 청소하셨다.

*38.*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흙일[흥닐]　㉡ 짓밟다[짇빱따]　㉢ 직행열차[지캥녈차]

① ㉠에서는 ㉡과 달리, 자음 'ㄹ'이 탈락했군.
② ㉢에서는 ㉠과 달리,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③ ㉠과 ㉡에서는 모두, 음운 변동이 각각 네 번씩 일어났군.
④ ㉠과 ㉢에서는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전체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군.
⑤ ㉡과 ㉢에서는 모두, 첨가된 자음으로 인해 조음 방법이 변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39.* <보기>의 ⓐ ~ ⓒ의 예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문장은 주동문,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문장은 사동문이라고 한다. 사동문은 주동문의 서술어 어근에 접미사를 붙이거나 어간에 '-게 하다'를 활용하여 만든다. 이때 ⓐ <u>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있는 경우</u>가 일반적인데, ⓑ <u>주동문의 서술어 어근에 접미사를 붙여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u>도 있다. 또한 ⓒ <u>비유적 의미나 관용구가 포함된 사동문인데 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경우</u>도 있다.

① ⓐ: 선생님은 학생들을 집에 가게 했다.
② ⓐ: 아버지는 나에게 그 사실을 숨겼다.
③ ⓑ: 영수가 더위를 먹었다.
④ ⓑ: 나는 산에서 낙엽을 모았다.
⑤ ⓒ: 그는 이제야 숨을 돌렸다.

**[40 ~ 43] (가)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 위해 만든 자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가짜 뉴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언론학과 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본격적 논의에 앞서 이 용어의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교수**: 네. 가짜 뉴스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모방해 유포된 거짓 정보를 뜻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죠?

**교수**: 그렇습니다. ⓐ <u>뉴스는 일정 수준의 신뢰도를 갖춘 언론 매체가 생산한 정보인데, 여기에 가짜를 붙인 표현이 만연하게 사용되면 언론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u>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행자**: ⓑ <u>최근 들어 허위 조작 정보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라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u>

**교수**: 국내 한 연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2%가 허위 조작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미 허위 조작 정보에 노출되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인 거죠.

**진행자**: 그렇군요.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식품이 전염성 질병을 예방한다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져 기사 형식으로 유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네, 이러한 정보가 실제로 어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피해를 겪은 시민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 보시죠.




**시민**: SNS의 글을 보고 △△를 먹었어요. ⓒ <u>유명 연구 팀이 식품을 개발했다고 하고, 후기도 좋아서 믿었죠.</u> 그런데 오히려 건강 상태가 나빠져 병원을 찾고 나서야 그 정보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행자**: 교수님,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가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퍼지는 건지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수**: 제작 단계에서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됩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이 뉴스의 주요 소비 경로로 자리 잡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기에 추천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고, 사용자는 무심코 이를 공유하면서 허위 조작 정보가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수**: 정부는 방송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플랫폼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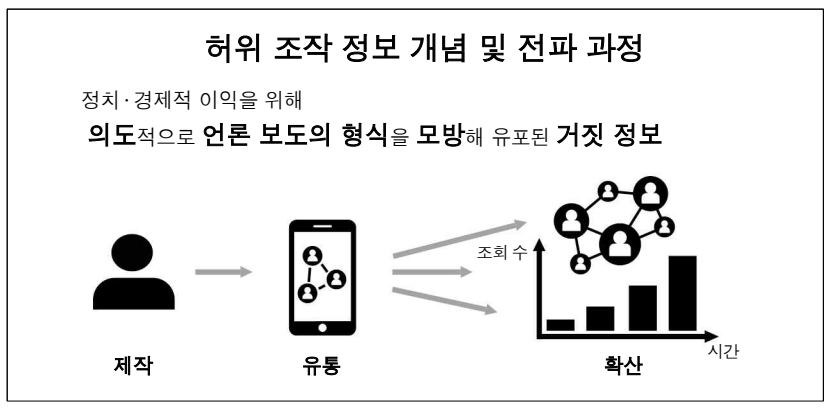
**교수**: ⓓ 허위 조작 정보의 신고 및 처리 체계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알고리즘 운용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을 줄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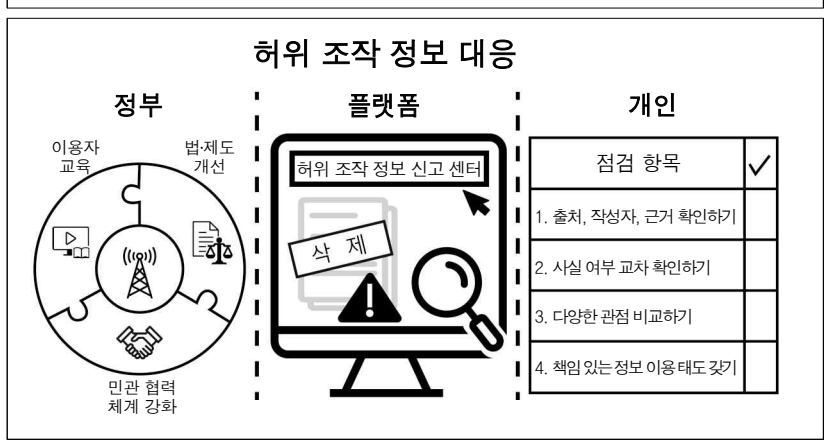
**진행자**: 결국 정보를 직접 접하고 판단하는 주체는 개인일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 차원에서 점검할 게 있을까요?

**교수**: 네. 정보를 접하면 우선 출처와 작성자, 제시된 근거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가 타당해 보이더라도 국가 통계 포털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보도를 비교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생산과 공유에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진행자**: ⓔ 정부와 플랫폼은 물론 개인이 함께 힘써야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겠군요. 허위 조작 정보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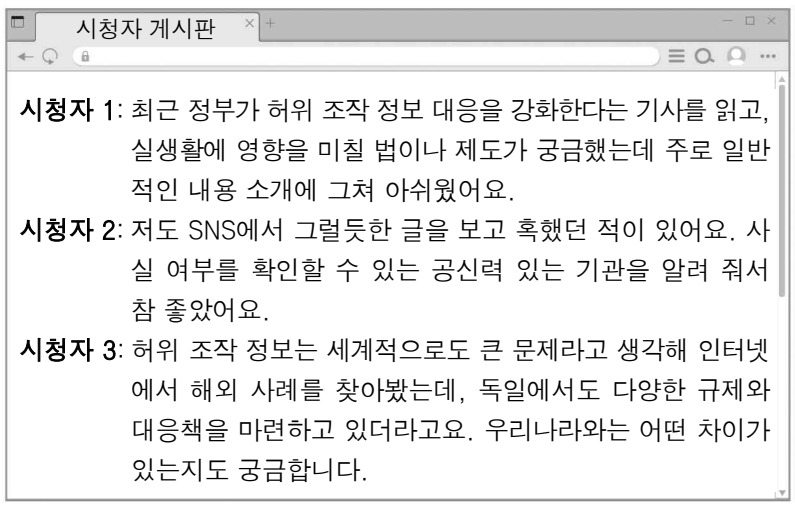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진행자'는 방송의 취지를 밝히며 '교수'에게 용어의 개념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② '교수'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③ '교수'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화면을 통해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④ '진행자'는 정보의 실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민 인터뷰 영상을 제시하고 있다.
⑤ '진행자'는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을 언급하며 다음 방송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41.* 다음은 (가)의 시청자 게시판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청자 1'은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근거로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② '시청자 2'는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비교하여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시의성을 따져 보고 있다.
③ '시청자 3'은 정보 전달자의 전문성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다.
④ '시청자 1'과 '시청자 2'는 모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있다.
⑤ '시청자 2'와 '시청자 3'은 모두, 추가로 수행한 탐색 활동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42.* 학생이 (가)에서 확인한 정보를 (나)에 제시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용어 개념의 주요 내용을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글자의 굵기와 크기를 달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허위 조작 정보가 전파되는 과정을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화살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③ 허위 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 증가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그래프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④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주체별 대응을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점선으로 분할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개인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을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4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ㄹ 수 있다'를 사용하여, 용어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 '-는데'를 사용하여, 실제 상황에 대해 묻기 위해 그와 관련해 들은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③ ⓒ: '-다고'를 사용하여, SNS 글에 제시된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 '-면서'를 사용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 '-어야'를 사용하여, 피해 감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44 ~ 45] (가)는 학교 행사에서 사용할 온라인 가상 게시판을 준비하는 학생회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이고, (나)는 행사 직전 확인한 온라인 가상 게시판의 모습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재능 나눔' 온라인 가상 게시판 준비 대화방

[공지] 회의 결과: 운영 시기 변경, 봉사 시간 부여

다시 열지 않음 | 접어 두기

2026년 4월 22일

**영서** 오늘은 재능 나눔 행사 때 활용할 온라인 가상 게시판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하려고 해. 내가 만들어 둔 게시판의 초안을 공유할 테니 함께 보면서 의견 내 줘.

rud○○eh.com/001
rud○○eh.com/002

**윤도** 지난 회의 결과를 공지로 설정했으니, 참고해.

**희진** 지난 회의에 못 가서 궁금했는데, 정말 고마워. ☺

지금은 게시물이 가로 방향으로 추가되는 형식인데, 많은 학생이 휴대 전화로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을까?

**주화** 맞아. 휴대 전화로 보기 편하게 게시물이 세로 방향으로 추가되는 형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영서** 그렇게 바꿔 볼게. 그럼 이제 게시판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야기해 보자. 지금 게시판 구성은 어때?

[게시판 구성]
– 행사 전 게시판: 공지 사항, 희망 조사
– 행사 후 게시판: 재능 제공자, 재능 이용자

**희진** 작년에는 '행사 전 게시판'에 재능을 나누려는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었어.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연결해 주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나.

**윤도** 맞아. 그럼 희망 조사 구역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게시물을 추가하자.

**주화** [답장] 작년에는 '행사 전 게시판'에 ……
↳ 작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지 사항 구역에 지난 회의 때 결정된 운영 방식을 안내하면 어때?

**영서** 좋은 의견이야. 그건 작년 행사 후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니, 학생들의 응답을 볼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네.

**주화** 학생들의 응답은 시각 자료를 통해 보여 주자.

**희진** 그게 더 좋겠다. 그런데 행사 후에 재능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말인데, 작년처럼 참여 후기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면 될까?

**윤도** 그것도 좋긴 한데, 혹시 투표 기능을 활용하면 어때? 우리가 결과를 정리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 같아.

**주화** 나도 동의해. 그러면 재능 이용자 구역에 자신의 만족도를 표시하는 투표 기능을 넣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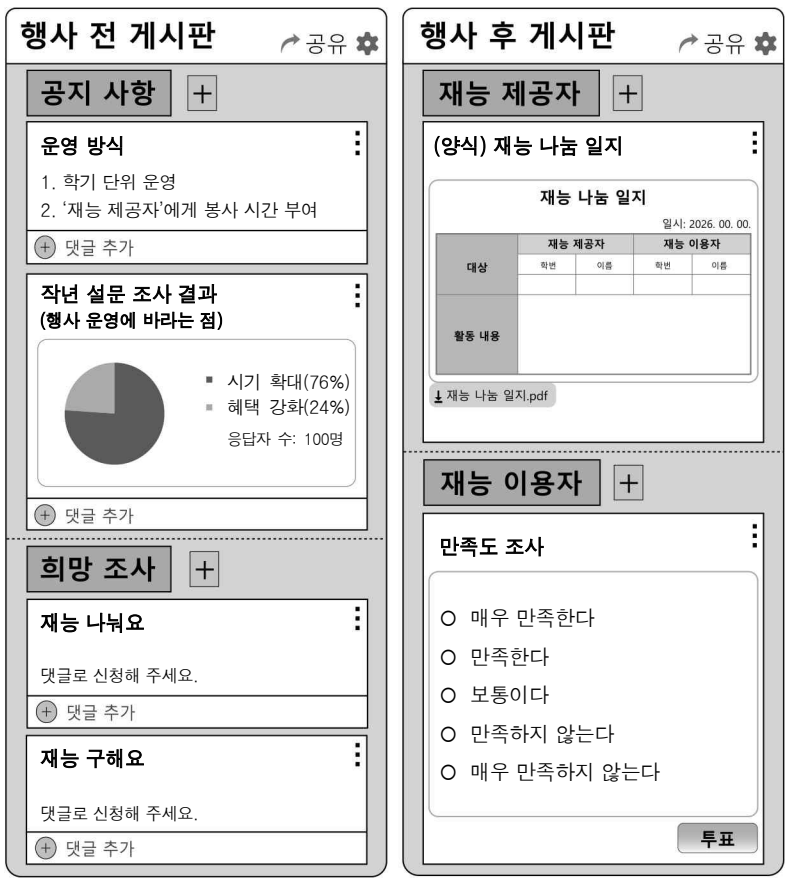
**윤도** 지금 보니까 두 게시판 모두 댓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대로 두면 될까?

**영서**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각 게시판을 활용할 때 댓글 기능이 필요할지 고민해 보면 좋겠어.

**희진** 행사 전에는 희망 조사 때문에 필요한데, 행사 후에는 일지를 내려받거나 투표만 하면 되니까 없어도 돼.

**영서** 좋아. 내가 반영할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자.

(나)




*44.* (가)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서가 링크를 전송하여, 자신이 미리 만든 온라인 가상 게시판의 초안을 공유하였다.
② 윤도가 공지 기능을 이용하여, 이번 회의에 참고할 내용을 화면 상단에 제시하였다.
③ 희진이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윤도가 내용을 공유해 준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표현하였다.
④ 영서가 줄을 바꾸는 방식을 이용하여, 온라인 가상 게시판의 구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⑤ 주화가 답장 기능을 이용하여, 희진의 이전 메시지를 다시 노출하며 메시지에서 언급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45.* (가)의 내용을 반영하여 (나)를 구성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두 게시판에서는 학생들이 게시판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희진과 주화의 대화를 반영하여, 게시물이 세로 방향으로 추가되도록 구성하였다.
② 행사 전 게시판에서는 작년 행사 때 어려웠던 점에 대한 희진과 윤도의 대화를 반영하여, 희망 조사 구역에 게시물을 추가하였다.
③ 행사 전 게시판에서는 공지 사항 구역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영서와 주화의 대화를 반영하여, 시각 자료를 삽입하였다.
④ 행사 후 게시판에서는 만족도 조사 결과의 활용 방법에 대한 윤도와 주화의 대화를 반영하여, 만족도를 투표로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⑤ 두 게시판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각 게시판을 활용하는 상황에 대한 영서와 희진의 대화를 반영하여, 댓글 사용의 가능 여부를 달리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